제7강 뒤샹과 칼 안드레 : 도구성에서 즉물성으로

(1교시-0716-01)

◎ 우리의 눈을 통해 계단을 내려오는 뒤샹

▲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

- 작품 경향 : **'무예술적'(anartistic)**이라고 스스로 명명함.

※ 무예술(anart)이란, 반예술을 위한 반예술을 내세웠던 다다이즘과 직접 연결되는 예술 허무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 영향 :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20세기 세계 미술에 깊은 영향. (미니멀리즘)

※ 미니멀리즘 :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수단으로 제작했던 회화나 조각을 가리킨다. '최소한의 예술'. 순수주의의 표명이라는 의미. 공통된 조형적 특징으로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사물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학의 개념은 카시미르 말레비치와 마르셀 뒤샹에게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후반부터 미술계를 장악하고 있다.

- 등장 : 1913년 애모리 쇼(Armory Show)에 전시되었던 **<층계를 내려오는 나부>**로 그 명성을 떨침. 피카소 이후 새롭게 발전된 입체파적 그림으로 인정받음. 1909년 마리네티(Filippo Tommaso Marinetti)가 피가로 지에 올린 '미래주의 선언'이 계기가 됐다.

- 피에르 카반느[1]와의 대담 : 동시성의 문제가 등장. (**<기차 속의 슬픈 젊은이, 1911>** 입체파를 넘어선 자부심의 표현.)

▲ <층계를 내려오는 나부>

* 그림1 층계를 내려오는 나부

- 뒤샹 : "나는 <층계를 내려오는 나부>에서 움직임의 정적인 영상을 창조하고자 했다. 움직임은 하나의 추상이며, 그림 내부에 분절되어 명확하게 추론된 것이다. 실제 인물이 실제 계단을 내려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는 없다. 근본적으로 운동을 그림에 삽입하는 것은 관객의 눈이다."(카반느, 64쪽)

→ 마레이(Etienne Jules Marey)의 연속 촬영 사진이 영향으로 동시성에 의한 운동을 회화를 통해 재현하려 함.

- 메를로-퐁티 : "이 그림에는 운동이 없다. 제논적인 정지들의 나열만이 있을 뿐이다."

(2교시-0716-02)

◎ 망막 회화를 벗어난 추상화의 길

1) 비평가 겸 미술사학자. 미술에 관한 많은 저서들을 냈으며 모두 수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주요 저서로 <루벤스>, <큐비즘의 서사시>, <마르셀 뒤샹과의 대화>, <19세기 미술>, <드가> 등이 있다.

www.artnstudy.com

- 반예술적 태도의 성과(뒤샹의 작품들)
: <두 개의 나체, 강한 나체와 빠른 나체>, <고속력의 나체들에게 횡단된 왕과 여왕>, <빠른 나체들에게 둘러싸인 왕과 여왕>, <처녀 1번>, <처녀 2번>, <처녀에서 신부로의 변화>, <그녀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등

- 독특한 경지에 이른 뒤샹의 회화의 총집결
: **<그녀의 독신자들을 위해 발가벗겨진 신부, 조차도>** (1915-1923)
→ 1900년에 발표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기본 지침서로 삼아 성적인 꿈, 욕망에 가득찬 왜곡된 갈망, 충동적 에너지, 그것들의 심령적 고양 등을 담고 있다. (린튼, 148-9쪽 참조)
⇒ 사람을 기계 장치로 표현하는 것이 들뢰즈가 존재하는 것들을 대체로 '기계'라 칭하는 것의 모델이 되는 것 아닌가?

- **피카비아**와의 만남 : 새로운 세기를 맞아 전체적으로 들끓고 있는 세상의 흐름에서 기존의 망막에 새겨지는 내용을 재현하는 이른 바 '망막 회화'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생리 심리적인 내면적인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확실하게 망막 회화를 벗어나 독특한 추상화의 길을 엶.

※ 피카비아(Francis Picabia) : 파리 출생. 파리의 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A.시슬레풍의 인상주의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다시 황금 분할파에 참가하였다가 1912년 오르피즘 으로 이행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수차 미국여행을 하여 애머리 쇼에 참가 출품하였으며, 그 뒤 M.뒤샹과 공동으로 다다이즘운동을 준비, 창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는 추상회화로 돌아가 초비합리주의(超非合理主義)를 제창하는 등 그는 모던 아트의 조류 모든 분야에 걸쳐 활약하였다.

◎ '레디-메이드'의 혁명적 출현

- <자전거 바퀴>, <병걸이>, <부러진 팔의 앞에서>, <샘> 등
- 1917년 뉴욕 '독립협회' 주최의 전시회에 보낸 작품이 문제를 일으킴. (남자의 소변기를 <R, Mutt>라는 서명을 하여 보낸 것.)

* 그림2 샘(1917)

(3교시-0716-03)

◎ 남자 소변기의 예술사적 혁명(즉물적인 예술세계로의 접근)

▲ <소변기-샘>의 존재론적 해석(레디-메이드와 관련한 뒤샹의 이야기)

- "내가 극력 밝히고자 하는 사항은, 레디-메이드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감성적인 쾌감이 아무런 구실도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레디-메이드의 선택은, 항상 시각적인 무관심성이라는 반발심에 토대를 두며 그와 동시에 세련되었건 조야하건 심미적 취미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 급기야는 전신마취에 토대를 둔다."

www.artnstudy.com

- “레디-메이드의 또 다른 양상은 유일무의한 단일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한 점의 레디-메이드를 묘사한 복제품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실제로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레디-메이드들 중 그 어느 것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원본이 아니다.”

- “(...)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림은 도움 받은(조작된) 레디-메이드라고 결론지어야 한다.” (리이터, 143~144쪽)

⇒ ‘도구성을 벗어버린 사물 자체의 세계’를 추구. 예술의 무의미성 내지는 예술의 공허함을 고발하면서 결국, 반예술의 기치를 드높이고자 함.
⇒ 어떤 규정도 허용치 않는 즉물성의 세계로의 접근 → 전신마취의 상태에 돌입 →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가 멈추어 서버리는 시각이 순간적으로 열림 → 나 자신마저 즉물성의 장속으로 끌려 들어가 하나의 사물이 되고 만다. (근본적인 사물성에 다가감으로부터 오는 멀미와 같은 떨림. 온통 사물의 축제가 벌어지는 원초적인 경지가 적막함이 흐르는 예술전시장에 소리 없이 넘쳐난다.)

(4교시-0716-04)

◎ 뒤샹에서 미니멀리즘으로

▲ 미니멀리즘의 기본 특징

- 사물성을 만들어내는 떨림을 적극적으로 추구(대상성 objethood).
- 작가의 표현성을 삭제.
- 사물 자체가 떨림의 짜임이기에 특별한 제작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 사물적 원초성에 집착(뒤샹의 레디-메이드 기법을 응용하되 레디-메이드를 근원적인 형태로 가져감)

▲ 칼 안드레

- 극단적 미니멀리스트
- <구리-알루미늄 평원(1969)>

* 그림3 구리-알루미늄 평원

- 쓰임새에 의한 떨림의 영역으로부터 짜임새에 의한 떨림의 영역으로.
- 예술의 바탕이 되는 몸과 사물의 발가벗은 접촉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목적.
→ 메를로-퐁티의 몸 현상학과 연결시켜 설명.

⇒ 미니멀리스트들은 산업화된 일상적인 사물들을 가져오더라도 그것들을 일정하게 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사물들 간의 리듬을 통해 떨림의 짜임으로서의 사물에 대한 당혹감을 해소시키려는 것.

www.artnstudy.com

※ 도널드 저드 <무제>(1972)

솔 르윗 <세 부분으로 된 세트>(1968) : “사물 자체의 질서가 있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 미니멀리즘은 인간 이전의 예술을 넘어서서 **예술 이전의 예술**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예술의 바탕이 되는, 분화되기 이전의 떨림의 짜임과 흐름을 추구)

<참고문헌>

린튼, 노버트 『20세기의 미술』(윤난지 역, 예경)
카반느, 피에르 『마르셀 뒤샹, 피에르 카반느와의 대담』(정병관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람버트, 로즈메리 『20세기 미술사』(이석우 역, 열화당)
휴즈, 로버트 『새로움의 충격』(최기득 역, 미진사)
리이터, 한스『다다, 예술과 반예술』(김채현 역, 미진사)
Ludwig Cologne Museum, 20th Century art, Taschen, 1996.

www.artnstudy.com